

石村洞 發見

原三國時代의 家屋殘構

金 元 龍

松坡洞漢江邊에 지붕의 서까래같은 것이 꽃혀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은 一九七〇년 가을이었으며 그것은 서울 居住 美國人 에디(R. Edy)氏와 벨슨(Nelson)夫人 두 사람이 土器片을 줏으러 江邊斷岸部로 다니다가 發見한 것이다. 나는 그해十月 十五일에 에디氏와 함께 現地를 그때 마침 民間所藏文化財展示會取材次 博物館에 왔던 東亞日報 寫眞記者次 長 朴相鎭氏도 同行해서 寫眞을 撮影하였다. 이때 豫備調査한 印象으로 는 이 서까래같은 나무들은 分明히 人工이 加해진 것이기는 하지만 지붕이 아니고 울타리같은 것이 아닌가 싶었고 박혀 있는 位置는 竝으나 이 一帶가 百濟時代 遺物 散布 乃至는 包含地라서 大體로 百濟時代 것으로 생각되었었다.

그 때 유적의 형편이 대규모의 本格的 發掘은 어려우나 그 性格을 究明하기 위한 小規模試掘은 可能하기 때문에 곧 발굴하려하다가 時日이 拮据되였다. 그러나 七一年에 들어 이 地區가 蠶室地區開發計劃에 따라 곧埋沒되게 되었다는 朴相鎭氏의 提報로 五月二日 급히 「救濟的」發掘을 실시한 것이며 國立博物館에서 韓炳三、金鍾徹 兩氏가 함께 참가하여 수고하였다.

서울 東南郊의 砂地를 흐르는 漢江은 廣壯里에서 두 줄기로 갈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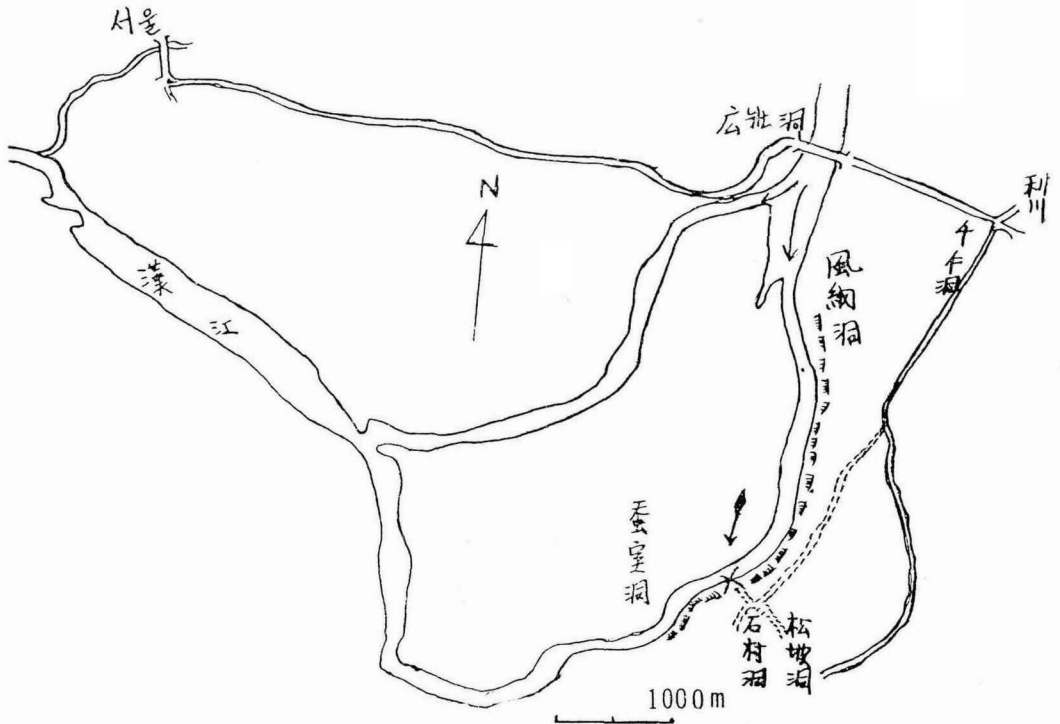


圖 1. 遺蹟 略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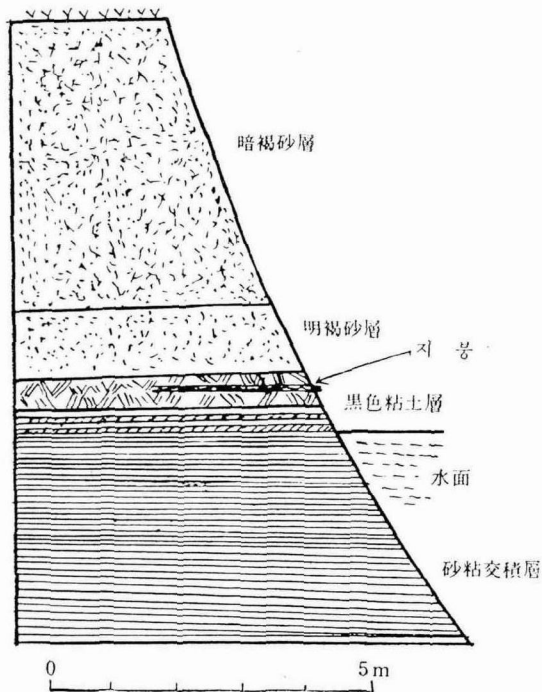


圖 2. 遺蹟地層圖

가 북쪽부분에서 다시 습치면서 그 안쪽이 곧 胃臟과 같은 형태의 砂地를 만들고 있는데 이 넓은 江圍砂地가 소위 蠶室里다. 한편 두 갈래로 갈라진 두 줄기 江流중 南쪽 江流는 크게 南쪽으로 曲流하면서 南岸의 沖積砂地를 침식하고 들어가 길고 높은 江蝕斷崖部를 形成하고 있으며 그 침식은 年年 증진해서 南岸의 耕作地가 減小되고 있는 形便이다. 소위 蠶室地區開發事業은 이 南쪽 江流를 埋沒하여 蠶室里와 石村洞을 連結하려는 것이며 이 事業으로 因해 斷崖部에서 發見된 瓦器介紹하려는 代家屋殘構도 埋沒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 發見 위치는 이 南支流의 대략 중간쯤되는 지점, 바로 蠶室里의 對岸이며 行政區域은 石村洞에 속한다. (圖 1)

이보다 若干 上流에는 松坡나루가 있고 더 올라가면 約 3km 上流에 風納里七城이 나온다. 서울서 이 유적으로 가려면 廣壯大橋를 지나 千戶洞으로 나가 거기서 南折, 大路를 따라 芳菴洞까지 가서 江邊을 向해 右折해서 松坡洞으로 向하다가 거기서 江邊으로 直出하면 된다.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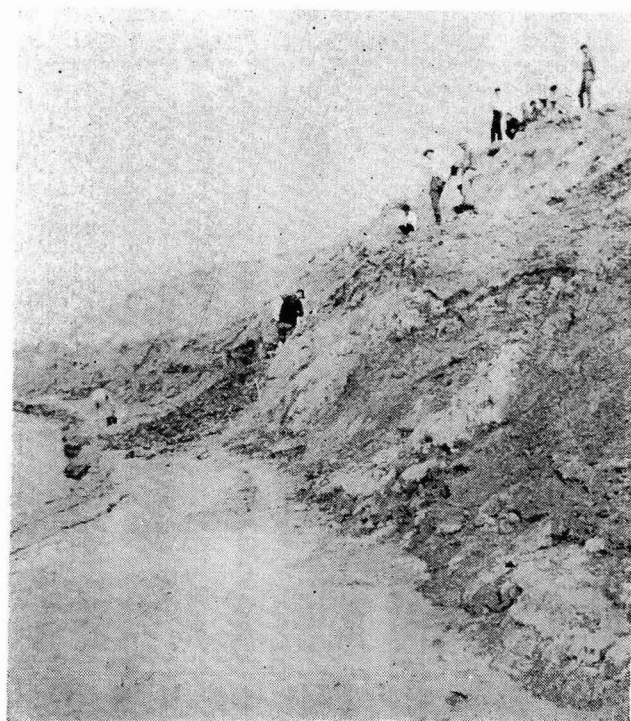


圖 3. 遺蹟全景(西에서)

정확한 발견 위치는 洞內에서 江邊으로 나가는 道路가 江岸과 마주치는 位置에서 下流쪽으로 五〇m 되는 地點이다.

이一帶의 砂地에서는 百濟時代의 土器片이 많이 나오며 年前에 文化財管理局와 高麗大學이 함께 發掘한 百濟時代初期의 平地封土墳群도 이 부근 可樂洞에 있고 積石塚들고 아직 洞內에 남아 있다.

却說 遺蹟現場인 江邊은 앞에 말한 것처럼 두툽계 쌓인 沖積砂地인데 여기 地層은 위에서부터 1, 暗褐色砂層(四·四m), 2, 明褐色砂層(一·一m), 3, 黑色泥質粘土層 4, 붉은 黑色粘土層 및 砂層의 交積발브 (Varve)層(水面下까지 계수)의 四層으로 形成되어 있다. (圖 2·3)

한편 1層에서는 百濟器土片, 李朝磁器片, 2層에서는 百濟土器片, 3層에서는 櫛文土器片과 礫石器破片들이 간혹 나오며 最下層인 받브층에서는 일체 유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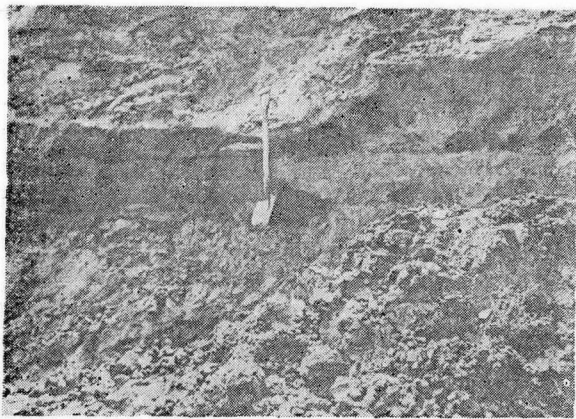


圖 4. 發掘前椽木露出狀況

問題의 家屋殘構는 一九七〇年 가을 檢査時에는 水面에서 不過 二~三〇cm 정도밖에 안되는 位置에서 나타나 있었으나 이번 發掘時에는 이 南支流를 위에서 막아버리고 蠶室里쪽에서부터 江을 埋覆하고 있어 물이 빠지고 水面이 훨씬 降下되어 있었다. (圖 4·5) 當初 調査에 依하면 正面幅 約 七~八m 內

이러한 堆積狀을 통해 보건대 最下層인 말브層은 後水期 유럽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安定된 夏冬節의 長期에 걸친 規則的 反復에 依한 沈澱土層의 結果일 것이고 그 위 黑色粘土層은 海進에 의한 水面上昇이나 長期의 洪水에 의한 河床擴張, 그리고 그 위 砂層들은 그 뒤의 沖積層의 結果라고 할 것이다. 新石器時代에 있어서의 全面的 海面上昇은 海水에 의한 全世界의 現象이었으며 日本의 경우는 海進의 頂點이 西紀前四千年頃이었고 다시 西曆紀元開始를 前後해서 小海進이 일어나고 있다. ① 이러한 日本의 現象은 當연히 우리나라에도 適用될 것이며 泥質粘土層은 遺物이 보여주고 있다시피 西曆紀元前의 三、四千年間에 생긴 層으로서 그 當時는 현재보다 훨씬 海岸에 가까운 地帶로 되어 있었을 可能性이 있고 그 後 海面後退에 의한 급격한 砂層形成과 河床降下, 그에 따르는 河段丘形成이 이루어졌고 百濟人들은 砂層形成初期에 江邊으로 進出해서 居住를 시작했던 모양이다. 이러한 事實은 風納里土城內 包含層의 發掘을 통하여서도 밝혀졌으며 風納里의 百濟住民들은 粘土層 바로 위에 砂

層을 住居面으로 하고 있었다. ②

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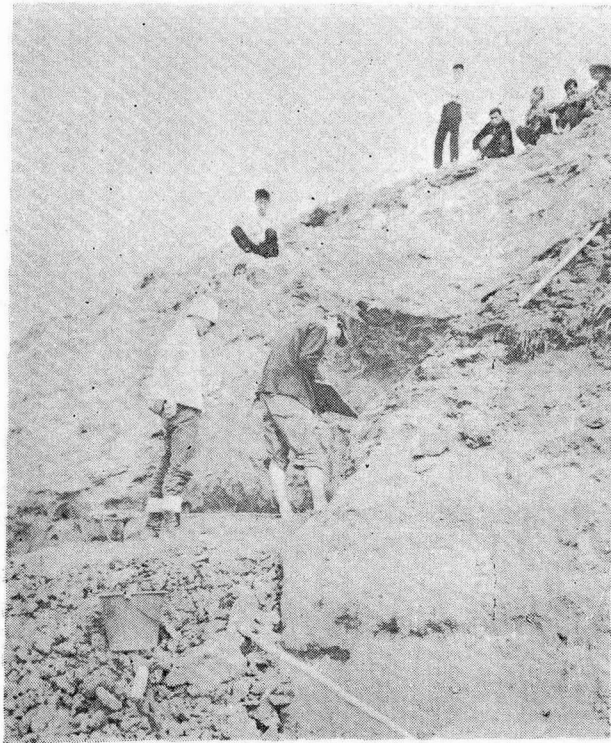


圖 5. 發掘狀況

에 두군데서 서까래 끝 같은 것이 一部 露出되어 있었는데 이번 發掘에서는 作業量關係로 中心部라고 생각되는 곳이 幅 三m, 길이 二m의 矩形平面을 들어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위에서부터 砂層을 들어내고 粘土層에 到達, 거기서부터는 主로 손삽을 利用해서 파내려갔는데 「서까래層은 粘土層의 上面에서부터 約 二〇cm 깊이에 묻혀 있었고 적어도 外觀上으로는 粘土層堆積時期에 堆積된 오리지날한 것이 分明하였다. (圖 6)

이 粘土層에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三國時代土器片이나 其他遺物은 一片고 나오지 않았고 「서까래」部 直上·直下 등 位置에서 小片의 末期 柳文土器片 五~六개가 나왔을 뿐이다.

우리가 當初에 서까래 또는 울타리라고 생각하였던 木材들은 發掘結果 헛간과 같은 움집의 지붕이었고 (圖 7) 直徑 基部에서 八~一〇cm 정도

깊이 二·七m의 참나무를 마루도리로 하고 거기에 굵은 가지들을 잘라서 걸쳐서 까래로 하고 그위에 木皮와 가는 가지들을 씨웠던 것이라고 생각되며 樹皮片과 나무가지가 一部 觀察되었다. 서까래로 쓰인 가지들은 直徑 五〇二cm 정도이고 길이는 긴 것은 三m 가량된 것이 있어 그것 하나로 지붕 양쪽을 덮는 통나무 서까래도 있으나 짧은 외쪽 서까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을 莫論하고 中央의 마루도리에 걸쳐지거나 그 아래를 지나고 있고 모든 一切 없고 칩뿌리같은 것으로 마루도리에 結着하였던 흔적이 한두 군데 남아 있었다. 또 서까래와 서까래 사이는 正確하게 規則的이 아니며 좁은 경우는 十cm, 넓은 곳에서는 二十cm 정도 사이를 두고 配置되어 있다. 이렇게 이 지붕은 一見 石器時代의



圖 6. 마루도리 및 서까래 出現狀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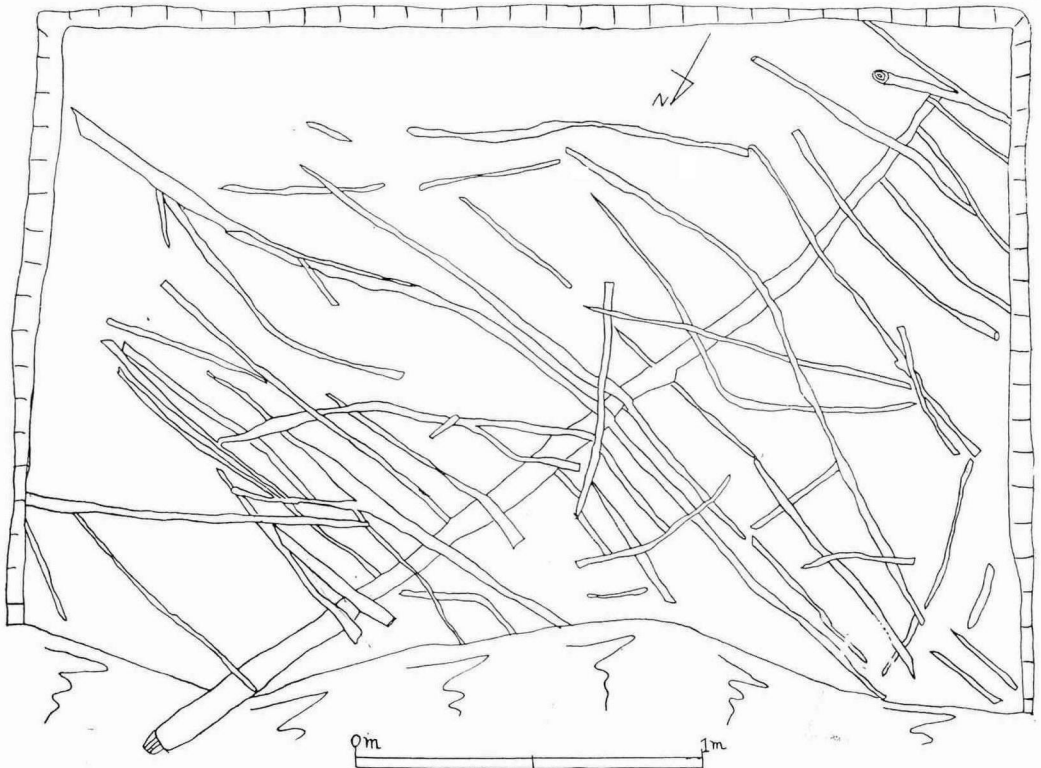


圖 7. 지붕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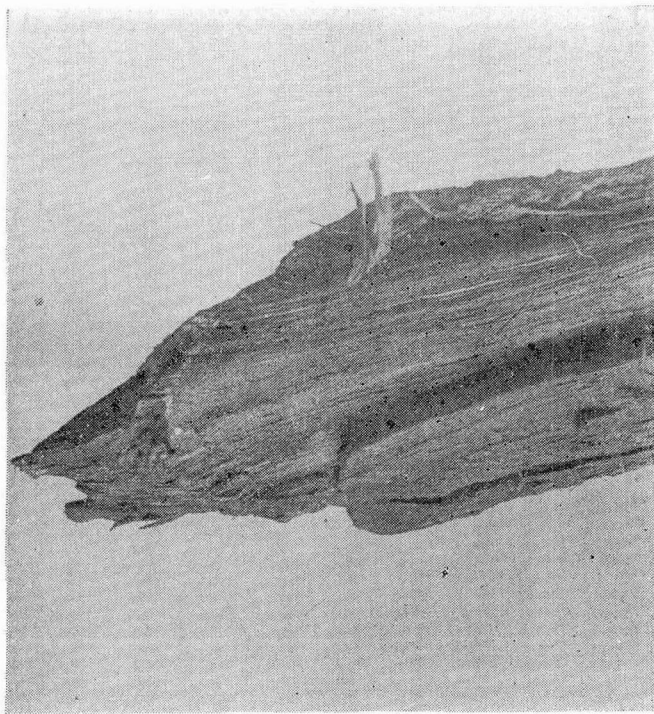


圖 8. 마루도리 돌 잘린 부분

움집같은 印象을 주고 있으나 나무가지들은 銳利한 武器로 잘라진 것이
 며 그 자국으로 보아 石製武器라고는 도저히 보기 힘들고 이것은 金屬
 製의 낫이나 자귀같은 것으로 다듬어 친 것이 分明하다. (圖 8·9)
 한편 發掘區域內에서 나타난 마루도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一·七
 m의 길이이고 그 基部는 칼자국이 있어 거기서 끝난 것이 分明하나 發
 掘區域 向左側 即 東쪽에는 이 지붕의 延長이 分明한 서까래들이 아
 직 남아 있으며 그것들은 우리가 발굴한 部分과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
 면 이 마루도리는 至今方向으로 約 一·八m쯤 더 길어야 하고 그 部分
 은 또 하나의 도리를 이었던 모양이다. 사실 二·七m는 마루도리로서
 는 너무 짧으며 또 現存 고리의 反對쪽 끝은 나무가 너무 가늘어서 그
 쪽으로 더 이상 연장될 수 없고 거기가 맞배식 지붕의 한쪽 끝이었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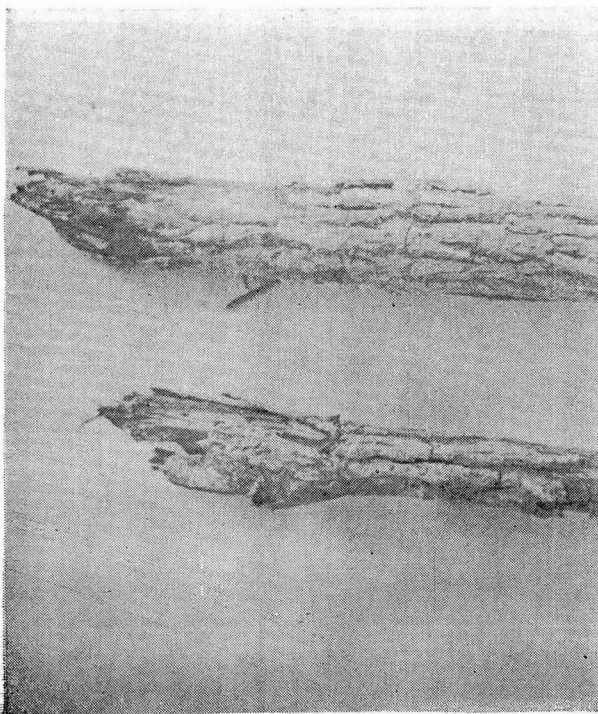


圖 9. 서까래 끝 부분

분명할 것 같다.
 결국 이 지붕은 二·七m와 三m 정도 길이의 두 개의 참나무를 이어
 서 全長 四·五m 가량되는 마루도리로 하고 거기에 三十~四十개 정도
 의 서까래를 걸친 다음 樹皮, 나무가지같은 것을 덮은 것이고 지붕의
 한쪽 斜面의 길이는 약 一·五m, 따라서 이러한 지붕에 덮힌 이 집의
 前後幅은 三m가 채 못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보편이 맞배지붕의 주거
 는 左右 약 四m, 前後 약 三m쯤 되는 아주 작은 面積이며 石器시대의
 堅穴들보다 클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지붕 밑에는 다른 기둥이나 기둥자리도 없어 이 지붕이 堅
 穴을 덮었던 움집 지붕인지 地上에 세워졌던 建築物였는지 알 수가 없
 다. 그러나 이 지붕이 발견된 상황 즉 이 진흙층의 조건이나 기둥 기타
 유물의 絶無로 보편이 자리가 原位置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으며
 이 지붕은 다른 곳, 그러나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흘러와서 여기가라

않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四

이상에서 보듯이 이 지붕은 三國時代인 砂層아래, 櫛文土器층인 黑色粘土층속에서 나왔고 몇片的 櫛文토기편이 부근에서 나왔으며 層階的으로는 엄연히 新石器時代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가장 合理的인 結論을 방해하는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하나는 서까래에 남은 예리한 金屬利器의 자국이 고 들찌는 放射性炭素年代이다. 즉 東亞日報社에서 서까래片 一개를 發掘前에 쫓아서 原子研究所에 보내서 기 二五〇년이라는 연대를 얻었고 발굴 후에 國立博物館에서 一片을 따로 보내 역시 서기 二五〇년이라는 연대를 提報받았다. 이렇게 되면 서기 三세기라는 年代는 상당한 信憑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 지붕이 粘土층보다 위에서 나왔다면 칼자국이 나 炭素年代가 모두 合致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지붕은 엄연히 新石器層인 黑色粘土層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칼자국은 使用된 利器가 마루도리의 경우는 도끼를 썼다고 생각되나 서까래의 경우는 칼 아니면 낫같은 것으로 다듬음에 배인 것 같다. 도끼는 청동기에도 있고 철기에도 있으나 이러한 用途에 쓰일 칼이나 낫같은 도구는 청동기에는 없고 역시 철기에서 비로서 나타나는 도구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붕의 시대는 철기가 비교적 넓게 보급된 청동기 II기(서기전 四세기~一세기)의 후기나 原三國時代④ 즉 중래의 소위 金海時代(서기 一세기~三세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앞에 말한 두개의 炭素年代와 맞추어 보면 原三國時代에 속하는 것이 가장 妥當하고 合理的인 것 같다.

이러한 事情이고 보면 그것이 黑色粘土層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가지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즉 그 하나는 이 지붕이 비록 黑色粘土層에서 나왔다고 하나 그것은 큰 洪水로 인해 黑色粘土層의 上部가 一部 교란되거나 불어서 조직이 약해져 그 위에 가라앉은 지붕이 점토층으로 沈降하고 그 위에 다시 점토가 퇴적했을 가능성이 있고,

둘째는 이 특정한 장면에서는 末期櫛文土器人들이 계속해서 청동기 II

기말경까지 살고 있어 시간적으로 청동기 Ⅱ기인 나 金海期人들과 共存하였으며 附近에 살고 있던 進歩된 鐵器人들의 집이 洪水에 쓸려서 櫛文土器人의 住居地로 흘러 들어갔다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들찌면 가능성은 사실은 현실성이 희박한 것이며 역시 첫째번 沈降堆積이 實相이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붕 殘構는 漢江邊에 살던 原三國時代人의 조그만 집이었거나 헛간이었다고 해야 하겠다.

五

이상 略說한 바와 같이 이 지붕은 四·五m×三m 정도의 平面을 가진 맞배形式으로서 규모도 작고 家屋의 其他 구조나 生活內容을 알 수 없는 貧弱한 것이었으나 原三國時代의 家屋—民家의 實地를 보여주는 唯一한 例로서 중요했으며 應急의 救濟發掘이기는 하였으나 이것을 통해 이 地域 漢江邊의 堆積相이 把握된 것도 한 收穫이라 하겠다.

註

- ① 河出書房刊 日本の考古學 第一卷 先土器時代(東京一九六五) 第Ⅱ章 「日本 四紀の自然」 P. 36~88 參照
- ② 拙著 風納里土城內包含層發掘報告(서울一九六七) P. 17~19 參照
- ③ 拙著 「韓國磨製石劍의 起源에 對한 考察」 白山學報 十輯(一九七一·六)
- ④ 原三國時代라는 것은 소위 三韓時代、三國時代初期、또는 考古學에서 말하는 金海時代に 대한 筆者의 새로운 命名提案이며 文獻史上으로는 考古學上으로는 妥當한 이름이 아닐까 생각된다. 英語로는 Proto-Three Kingdoms Period가 되며 記錄上과 實地 歷史上에서의 不合理點이 서로 妥協될 것 같다.